

<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<선생님 코치> : 새벽설교를 할 때는 항상 앞부분에 ‘주일말씀 주제’를 인식 시켜주고, 잠언을 전해줘야 된다.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 ‘주제’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그에 해당되게 깨닫는다.

- <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해주는 잠언>은
‘한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잠언’입니다.

1. 현대인들은 <자기>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, 쓰려고만 한다.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. 그러니 ‘별 효과’가 없다.
2. <중장비>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, 아무리 큰일이라도 호미와 괭이와 삽을 사용하는 ‘원시인들의 삶’을 면하지 못했다. <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>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, ‘현대식 건물들’도 ‘하나님의 자연성전’도 만들지 못했다.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. <중장비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>이 ‘일’을 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100년, 1000년이 가도 ‘하나님이 원하시는 뜻’을 이루지 못한다.
3. <하나님이 보낸 시대 구원자>는 ‘중장비 같은 자’다. 모두 그와 일체 돼야 ‘큰일’을 할 수 있다.
4. <하나님>은 ‘지구를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자’ 이시고, ‘인간의 생각으로 측량이 안 되는 무한한 존재자’ 이시다.

5. <인간의 머리>로는 ‘하나님’을 측량하지 못한다. 비유를 들어 말하면, <10cm 자>로 ‘10000km’를 한 번에 잴 수 없는 것과 같다. 그러므로 하나님을 조금씩, 조금씩 배우면서 자기를 만 들어 나가야 된다.
6. <그리스도>는 하나님과 일체 되어 행하니, ‘인간으로서 무한대’로 행하신다.
7. 항상 <하나님과 성령님 쪽>으로 ‘자기 사고’를 굳히고 행해야, 삼위도 인정하시고 돕고 함께하신다. 그래야 ‘자기가 만들 것’을 찾고 만들게 된다.
8. 저마다 <자기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심정의 중심>이 ‘하늘 편’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행해야 된다. 그 중심이 ‘세상’으로 기울어져 있으면, 나무가 뽑히듯 ‘하늘 주관권’을 벗어나게 된다.
9. <사람의 뇌>는 ‘행하는 대로’ 발달된다.
10. <눈>은 보는 대로 발달되고, <귀>는 듣는 대로 발달되고, <말>은 말하는 대로 발달된다. 그러므로 ‘보지 말아야 될 것’은 보지 말고, ‘듣지 말아야 될 것’은 듣지 말고, ‘말하지 말아야 될 것’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.
11. <그릇되게 행하는 자>는 ‘뇌의 사고가 그릇된 자’다.

12. 하나님은 <사람의 생각>을 보신다. 그리고 ‘생각하는 것’ 이 악하면, 때를 따라 ‘심판’ 하신다.
13. <하늘 것을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함>으로 ‘자기 뇌’ 를 ‘하늘의 뇌’ 로 만들어야 된다. 그러면 그 뇌는 ‘영원한 가치가 있는 뇌’ 가 된다. ‘하늘나라로 가는 영’ 을 만들었기 때문이다.
14. <인생의 최고의 목적>은 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’ 이다. 그렇지 않으면 <육>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대로 ‘육성’ 으로 기울어져서 ‘육에 속한 삶’ 만 살게 되고, 그러면 <영>을 ‘하늘에 속한 영’ 으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.
15. <육>으로 <영>을 만들되, 먼저는 ‘그 육’ 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.
16. 사람들은 <육>을 중심해 살면서 ‘영’ 을 살핀다. 그러면 ‘그 영’ 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게 된다.
17. 누구든지 절대 <영>을 중심한 ‘육의 삶’ 을 살아야, ‘영원한 희망의 역사’ 가 일어난다.
18. <하나님의 마지막 천 년 역사에 와서 주를 통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듣고 소화하고 행하는 자들>은 ‘그 영’ 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으로 성장되고, 부활되고, 휴거된다.